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8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2월 10일) 2020년 3월 4일 수요일

코로나19 확산… 불교계 선제 대응 '총력'



법보종찰 해인사가 일주문 앞에 내건 산문폐쇄 현수막. 사진제공=해인사


조계종 총무원 출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장비와 손소독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법회가 중단돼 한산해진 조계사 경내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신성민 · 노덕현 · 윤호섭 · 하성미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교계가 산문 폐쇄와 정기법회를 중단하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은 2월 23일 발표한 2차 긴급 지침을 통해 "2월 24일 초하루 법회를 비롯한 모든 법회, 성지순례, 교육 등 대중들이 참여하는 행사와 모든 모임은 전면 취소하라"고 소속 사찰과 단체에 공지했다.

이어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일부 지역의 사찰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달라"면서 "한시적 산문폐쇄 등 적극적인 선제조치를 검토"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석예불 등 사중 기도 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조속한 쾌차와 국민들의 심신 안정 및 회복을 위한 축원을 시행토록 했다.

또한 조계종은 2월 24일 총무원 청사와 서울 조계사 등 주요사찰에 열화상카메라와 진단장비, 체온계 등을 설치하고 출입자에 대한 발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구본사 · 도심사찰 출입 통제

이 같은 조계종의 긴급조치에 따라 전국 교구본사와 도심사찰들은 산문폐쇄와 법회 중단 등을 시작했다. 정부와 지자체들도 법회 등 종교행사 개최에 대해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계가 감염 예방을 위해 발 빠른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는 "2월 21일부터 3월 1일까지 가야산과 해인사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산문폐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인사는 "가야산과 해인사 방문 계획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에 일정을 조율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돈관)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산문을 폐쇄했다.

은해사는 "은해사 본사를 비롯한 말사 및 부속기관 등에서 봉행하는 기도 · 법회 등 대중이 모이는 모든 활동을 전면 취소하며 은해사 산내 종무원을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도 전면 통제한다"면서 "질병관리본부 방침에 따라 해당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회 중단도 이어지고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법문을 잠정 중단했다.

통도사는 "2월 24일 초하루법회부터 3월 9일 출가열반재일 회향까지 이뤄지는 법회 가운데 불공과 축원, 회향시식은 자체적으로 계속 진행하지만 대중 법문은 금지하고 법회 차량 운행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법회 동참을 원하는 신도들에게는 온라인 기도 접수를 권장, 법회의 불공과 축원, 회향시식의 녹화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가정에서 법회에 동참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사찰 방문 신도에 대한 발열체크와 경내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2월 22일 발표한 안내문을 통해 "2월 23일부터 모든 대중법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범어사를 찾는 관광객과 등산객의 출입 역시 차단된다. 신도들은 참배를 할 때는 사찰 입구에서 인적사항을 기록한 뒤 입장해야 하고, 경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성법)는 2월 22일 공지를 통해 "초하루, 보름, 지장재일 법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내 방문객들이게 마스크 착용과 신체 접촉 지양을 당부했으며, 기도 시 1m이상 거리를 둘 것도 권고했다.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성우)는 "전북불교회관과 혁신도시 포교당 수현사에서 봉행중인 일요법회와 관음재일법회 초하루 인등기도, 신중기도 등 각종 법회와 행사를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2월 24일 밝혔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는 초하루 법회와 오는 3월 7일 봉행될 정기법회를 모두 취소했으며, 대중 공양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조계종 제21교구본사 송광사(주지 자공)도 "코로나19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월 24일 봉행 예정이었던 초하루법회가 취소됐다. 개인 참배는 가능하나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2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광주 도심에 위치한 증심사(주지 증현)는 2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 초하루, 초사흘, 칠성재일 법회를 전면 취소했다. 또한 공지를 통해 △기침 · 발열 · 호흡곤란 등 유증상자와 고령자, 만성질환자 사찰 출입 금지 △사찰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치된 손 소독제 소독 후 법당 출입 등을 당부했다.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도 지난 2월 20일부터 철야기도와 법회, 대중 공양을 모두 중단한 상태다.

해인사 등 산문 폐쇄와 통제중
전국 사찰들 정기법회 중단해
불교계 행사 · 교육 등도 연기
사회적 약자위한 기부 이어져
발빠른 대응에 정부 감사인사
종교지도자 "극복 발원 기도"

전국 템플스테이도 한동안 운영이 중단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전국 137개 사찰의 템플스테이 운영을 2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 달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템플스테이 운영 중지 기간의 단축 및 연장, 기타 추가 지침을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학술 · 문화 등 불교계 행사 연기도

코로나19 확산에 3월부터 예정됐던 불교계 행사들도 연기되고 있다.

조계종은 3월 6일로 예정됐던 '백만원력 2차 열암곡 기도법회' 를 잠정 연기했고 현재 3월 12~20일 예정된 구족계 수계산림과 3월 6일 예정된 4급 승가고시의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2월 말과 3월 초 예정인 사미니 승가대학과 기본선원 등의 기본교육기관 개학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정기총회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제40차 정기총회는 3월 25일로 연기됐다. 2월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비구니회의 비구니승가연구소 개소식과 2월 22일 개최 예정있던 21세기불교포럼 창립총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3월 14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마음선원 산하 대행선연구원 계절 발표회 역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은 3월 3일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대흥사 서산대사 유물 기획전' 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서산대사 탄신 500주년을 맞아 해남 대흥사가 소장하고 있는 서산대사 의발 등 유물 일괄을 전시할 계획이었다.

조계총림 송광사 성보박물관은 2월 25일부터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도들과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임시 휴관에 들어갔다.

불교문화 강좌 및 교육 프로그램도 일정이 조정됐다. 조계종 불교음악원은 불교합창아카데미 제3기 단원 모집 일정을 변경해 단원 면접과 개강을 3월 25일과 4월 1일로 각각 연기했다. (재)대한불교진흥원도 대원불교문화대학 1학기 개강을 3월 25일로 미뤘으며, 3월 2일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불교문화강좌센터 강의 역시 4월 6일로 연기했다.

"힘내세요"… 기부 · 메시지 잇달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마스크과 손세정제 등을 전달하는 보시행도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는 2월 27일 부산시에 코로나19 피해복구 성금 1000만원을 해운정사 총무 신행 스님을 통해 오거돈 시장에게 전달했다.

위례 천막결사 상월선원 정진대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받는 소외계층에 마스크 1만개와 손세정제 1000개를 2월 25일 전달했다. 이번 마스크와 손세정제는 2월 7일 진행된 상월선원 천막결사 회향 당시 사부대중이 후원한 공양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마스크 구입 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중 의견을 모아 정진 스님 중 호산, 도림, 인산 스님이 대표로 전달했다.

태고종(총무원장 호명)2월 26일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기원하며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에게 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으며, 법당에서 한국과 중국의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의식을 봉행했다.

불교 등 7대 종교지도자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국민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공동회장 원행)는 2월 25일 각 종교 대표자 명의로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이번 감염증 확산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정부와 의료진의 지침을 잘 따라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과 능력을 신뢰하며, 종교계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불교계의 선제 대응에 정부의 감사 인사도 이어졌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2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조계종에서 어느 종교 단체보다 발 빠르게 선제적 대응에 나서줘 감사하다. 불교가 먼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줘 고마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2월 25일 원행 스님을 예방한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도 "어려운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계에서 가장 먼저 조계종이 선뜻 결단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정부에서도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민간을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 나가기 위한 총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및 사설 2 · 3면〉

www.boryeon.com
연등설치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철거–보관–유지관리까지 보련기획이 책임집니다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중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시공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약조건
보관 및 유지관리 대행
별도의 공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